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 ①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규모 3.3만 명으로 조정
- ② 금형원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도입 추진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였습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5년부터 정식 운영 중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상세 붙임1)

<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

(E-7-4 비자 영향)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확인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날 때 같은 지역에 '직업' 사유로 전입하는 내국인도 약 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

*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상세 붙임 2)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붙임 1) 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조사 결과
- 2) '26년 주요 비자 발급규모
- 3)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 결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05)
		담당자	사무관	이윤호 (02-2110-421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김진겸 (02-2110-4067)



1] 외국인 유입에 따른 지역 인구이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내국인 이동) 2018~2023년 동안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남에 따라 ‘직업’ 사유*로 내국인이 약 1명 증가하였으나, ‘비직업’(주택, 교육 등) 사유로는 유의미한 인구이동이 나타나지 않음

* 전입신고 시 선택하는 전입사유(직업, 주택, 교육 등) 중 “직업”을 선택한 경우를 의미함

- (내국인 고용)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 효과의 경우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의 산업·직업에서 발견되지 않음

※ 지역에 외국인이 유입될 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에서 내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수상 및 항공 운송업(외국인 1명당 0.02명↓)’이 유일

2]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도입의 지역노동시장 영향

- (인력부족 완화) E-7-4 비자 도입이 지역의 유효구인인원* 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E-7-4 비자 활용도가 1% 높을수록 유효구인인원이 약 0.16% 감소

* (유효구인인원) 기업이 구인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인원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의미

- (생산성 향상) E-7-4의 주요 도입업종인 “뿌리산업”의 경우 E-7-4 비자 활용도가 1%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0.1% 증가

3]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 분야)」 결과(상세 붙임3)

- (제조업) 숙련기능인력(E-7-4)을 고용하는 이유로 장기간·안정적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0%, 숙련기능인력이 인력 활용에 ‘도움 된다’라는 응답이 87.3%로 나타나, E-7-4 제도 확대의 성과 확인

- (농업) 고용기간별 인력 수요는 일용(일당제) > 임시(한달이상) > 상용(연중) 순 (전년도 조사결과와 동일)으로 하게 나타났으며, 일용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나타나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의 필요성 확인

*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제도

※ (향후계획) 조선업 등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 체계를 구축 예정

가. 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25년 발급규모 (실제 발급량)	'26년 발급규모
교수 (E-1)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별도 상한 없음	별도 상한 없음
회화지도 (E-2)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 (E-3)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제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직업 (E-5)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으로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술흥행 (E-6)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정활동 (E-7)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 전문(E-7-1), 준전문(E-7-2), 일반기능(E-7-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로 세분류	<'24년 도입> □ 요양보호사 400명(15) □ 항공기(부품) 제조원 300명(98) □ 송전 전기원 300명(78)	<'26년 신규 도입(예정)> □ 금형원 <'25년 도입>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330명 □ 자동차 부품제조원 100명 □ 도축원(기능직) 150명 <'24년 도입> □ 요양보호사 400명 □ 항공기(부품) 제조원 300명 □ 송전 전기원 300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 35,000명	□ 3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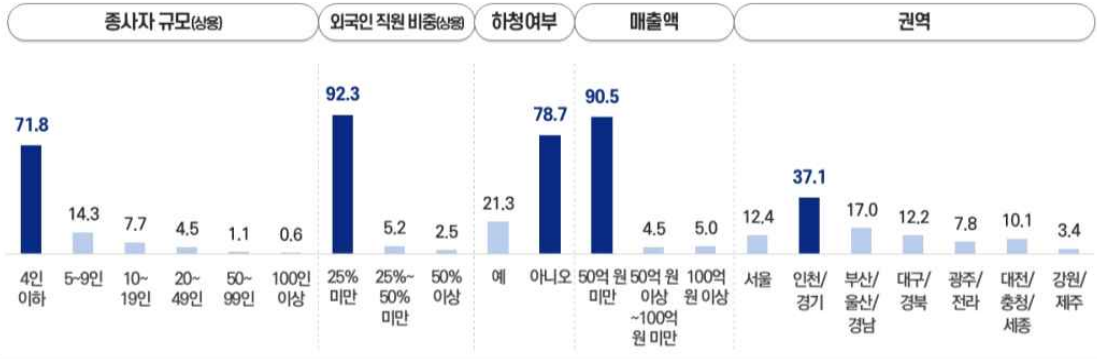
나.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비자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활동범위	'25년 발급규모 (실제 발급량)	'26년 발급규모
계절근로 (E-8)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	95,700명 (70,964)	상반기 109,100명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130,000명 (51,670)	80,000명
선원취업 (E-10)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부원(E-10-2)	22,200명 (19,667)	22,000명
	5톤 이상 내항상선 부원(E-10-1)	1,200명 (1,200)	1,200명
	2천 톤 이상 순항여객선 부원(E-10-3)	100명 (33)	100명

I. 제조업 분야 1

사업체 특성 : 일반제조업

(Base: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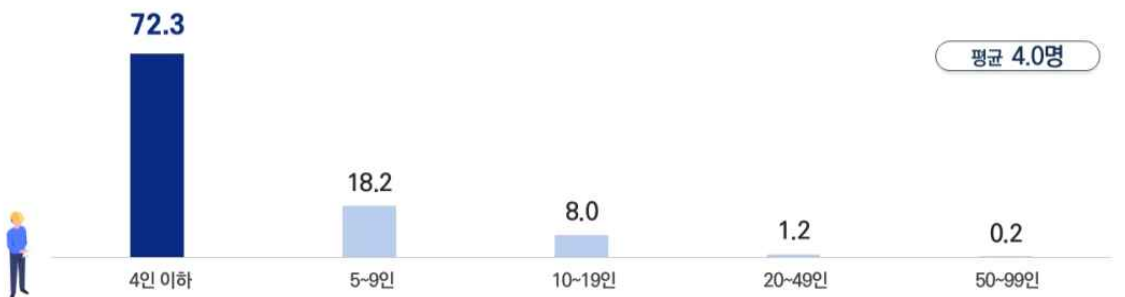
사업체 특성 : 비전문취업(E-9) 고용 제조업

(Base:전체, 단위: %)



비전문취업(E-9) 자격 근로자 수 : 일반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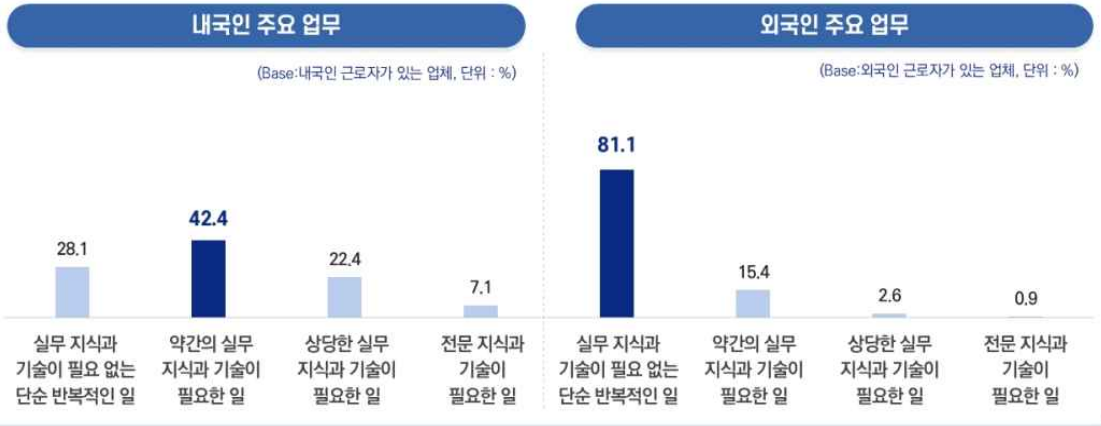
(Base:E-9 근로자 수 1명 이상 입력한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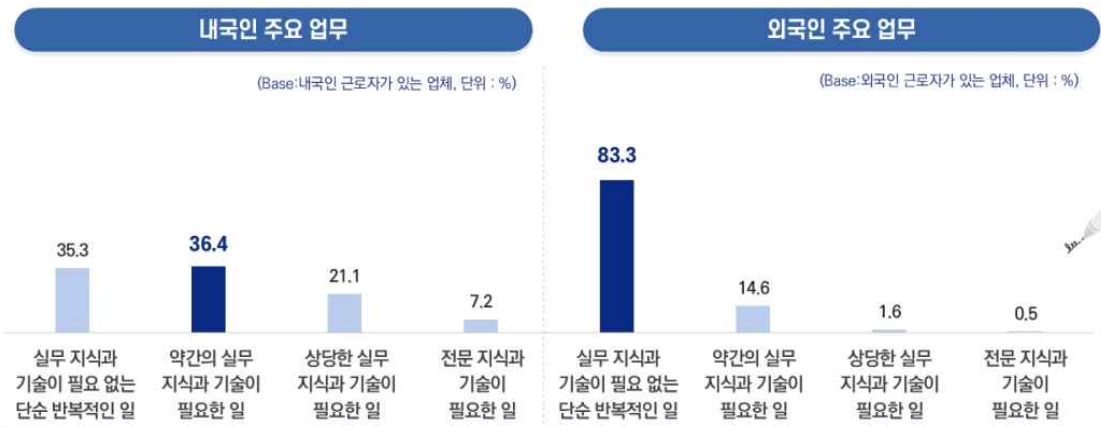
I. 제조업 분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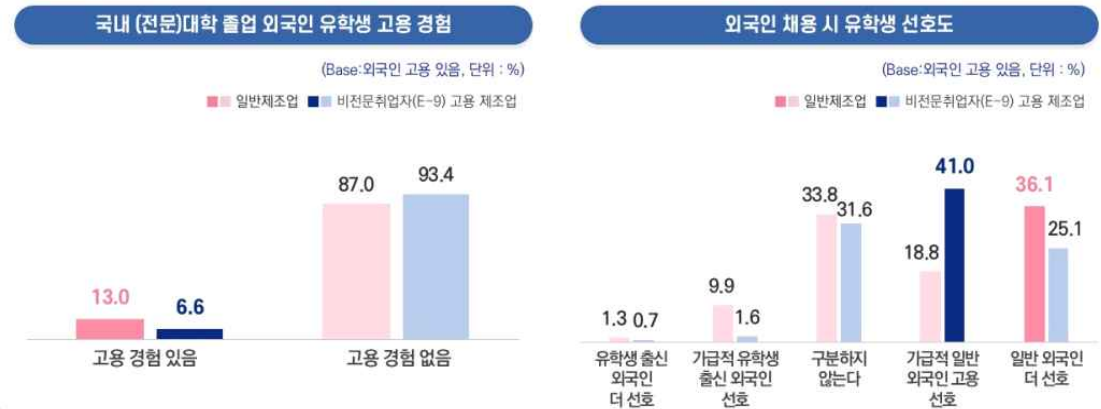
근로자 주 업무 수행 : 일반 제조업



근로자 주 업무 수행 : 비전문취업(E-9) 고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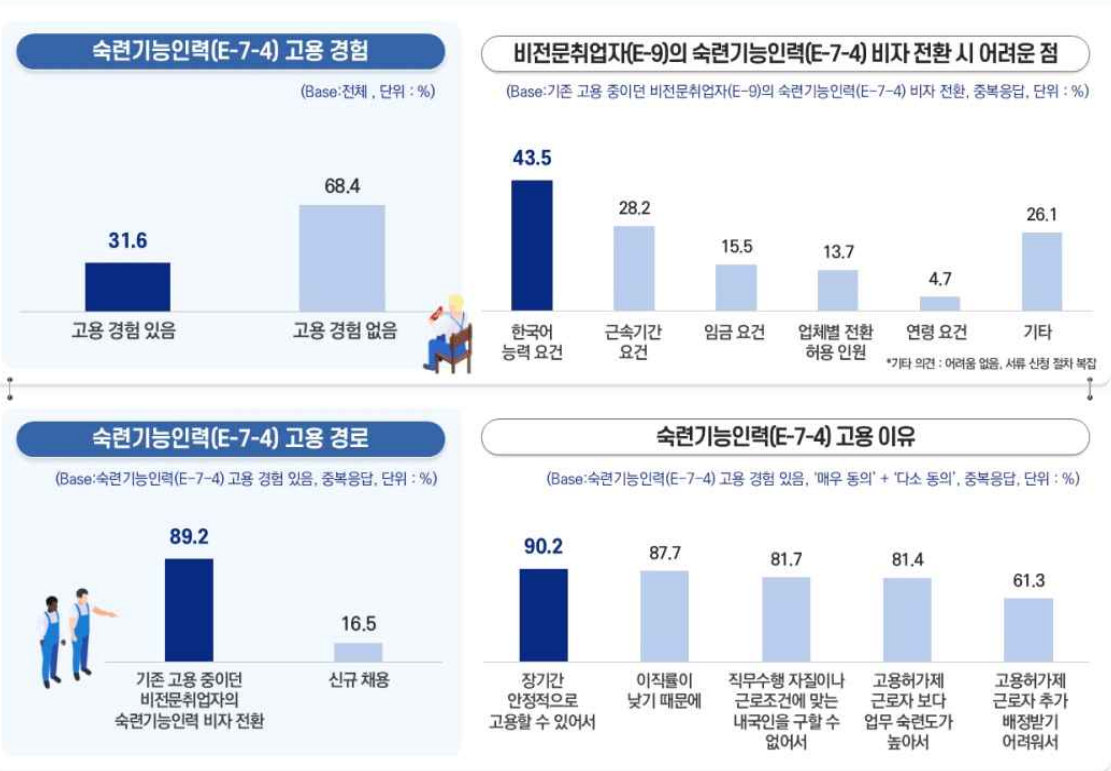
국내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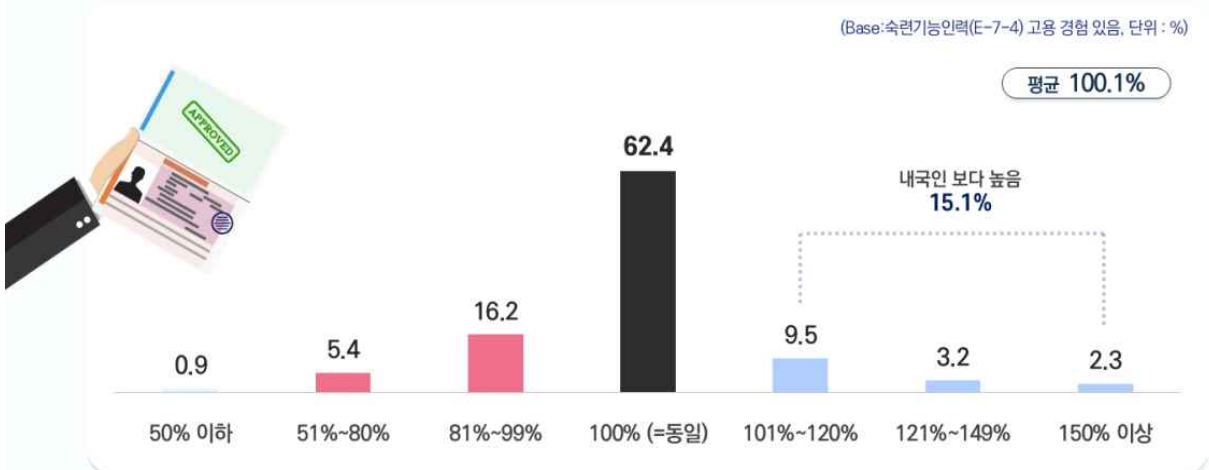
I. 제조업 분야 3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 비전문취업자(E-9) 고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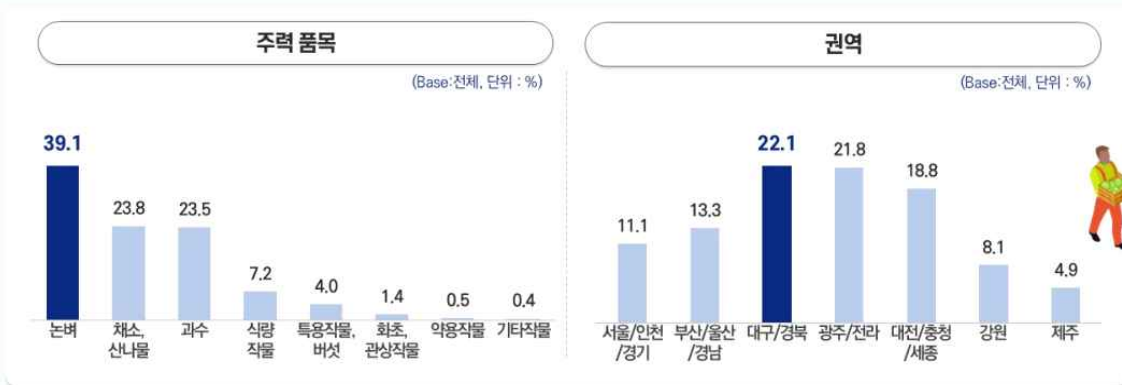


내국인 대비 숙련기능인력(E-7-4)의 생산성 : 비전문취업자(E-9) 고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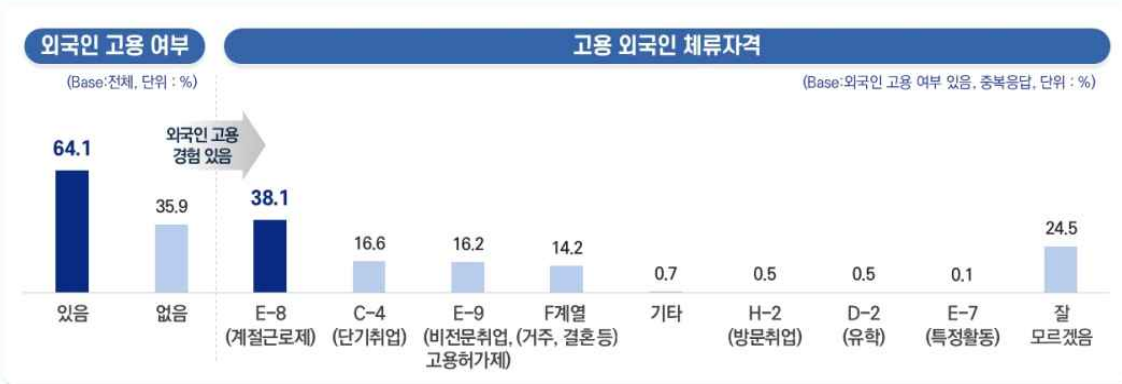


II. 농업 분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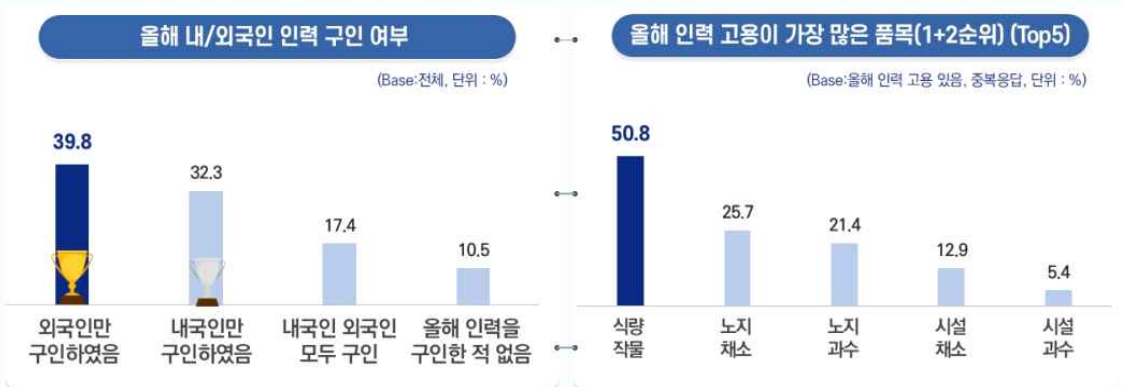
농업경영체 특성



농업경영체의 외국인 고용 여부 및 피고용자 체류자격



인력 구인 여부 및 인력 고용이 많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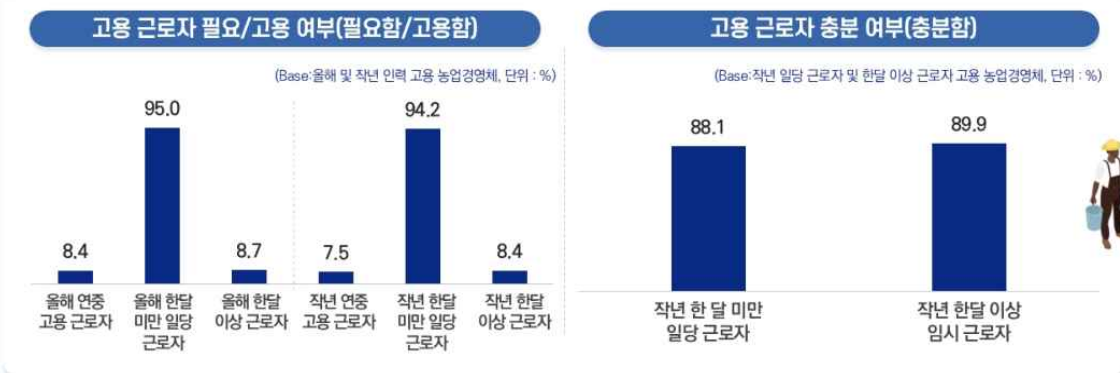
II. 농업 분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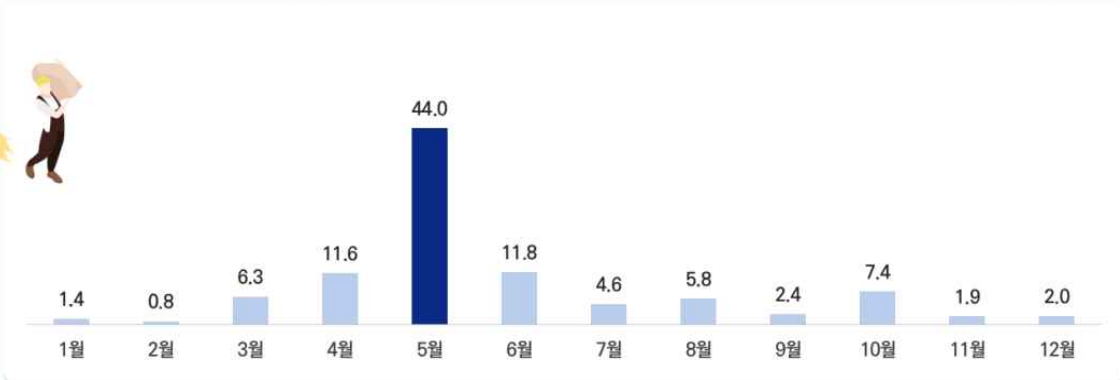
인력 채용의 어려움 및 외국인 채용 경로



농업경영체 인력 현황



작년 한 해 농업경영체의 농번기



II. 농업 분야 3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일용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

(Base: 직년 일당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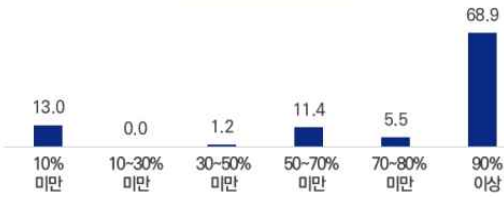
일용근로자 외국인 비율 53.5%



임시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

(Base: 직년 한달 이상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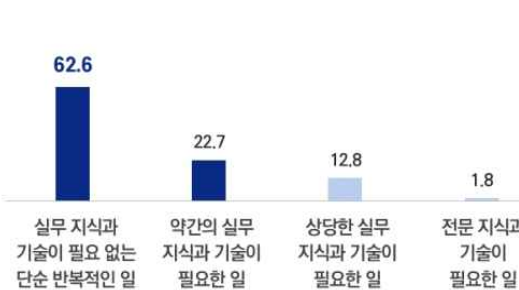
임시근로자 외국인 비율 79.2%



근로자 주 업무 수행 : 농업경영체

내국인 주요 업무

(Base: 내국인 고용 경험이 있는 농업경영체, 단위: %)



외국인 주요 업무

(Base: 외국인 고용 경험이 있는 경영체, 단위: %)



올해 부족 인력이 발생한 원인

(Base: 올해 근로자를 구인한 농업경영체, 단위: %)

